

KMI 동향분석

VOL.24
2017 APRIL

발간년월 2017년 4월(통권 제24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향분석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장홍석 수산정책연구실 실장
(mindrock@hanmail.net/051-797-4542)

백진화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jhbaek@kmi.re.kr/051-797-4545)

4월 17일 전후로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다. 이 협상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 EEZ 내 한국어선의 수산물(주로 명태) 쿼터를 정하는 것인데, 러시아는 최근 들어 수산물 쿼터와 극동 러시아로의 수산분야 투자를 연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극동 러시아 수산분야로의 투자(명태 비즈니스 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명태는 원어(원료)를 러시아로부터 중국이 수입하여 가공, 전 세계로 수출해 왔으나, 최근 러시아가 명태를 직접 가공해 수출하려는 정책을 세우고 외국인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한·러 양국은 지난 25여 년 동안 수산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맺어왔다. 이 연장선상에서 러시아는 한국에 명태가공 산업 등에 대한 극동 러시아 수산분야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극동 러시아 수산투자를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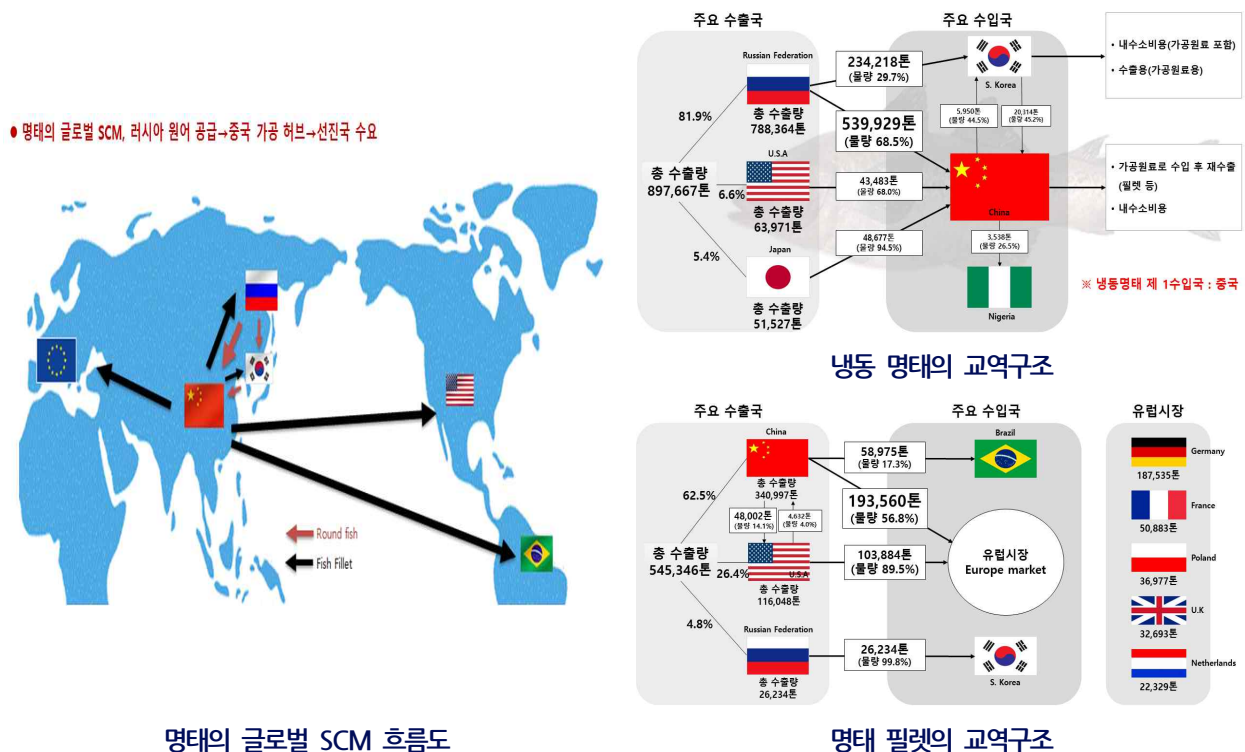
그러나 극동 러시아 투자 진출 시에는 장단점이 있다. 러시아는 극동 러시아 경제개발을 위해 극동개발부 설립, TOR 및 자유항 정책 등을 공표하면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반면에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 루블화 가치 하락 등의 거시 환경은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본은 작년 12월에 3조 원에 달하는 극동 러시아 투자 유치 계획을 러시아 정부에 전달했다. 우리는 극동 러시아 수산분야로 진출 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간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 생선 명태, 글로벌 빅비즈니스의 판도 변화

■ 글로벌 빅비즈니스 어종인 명태, 세계시장규모(원어 기준)는 약 4조 원

- 1990년대말 동해안으로부터 사라진 명태는 여전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산물 중의 하나로 연간 20~25만 톤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한국의 수산물 수입규모(수입량, 수입액 모두)에서 1위는 단연코 명태
- 한편, 명태는 베링 해에서만 연간 약 270만 톤 생산되며, 냉동 원어 기준으로 약 35억 달러(3.8조 원, 2013년 기준)¹⁾의 원료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명태 필렛 기준으로는 최대 약 6.5조의 글로벌 시장 규모 형성(냉동 명태를 필렛으로 전량 가공할 경우)

그림 1. 명태 및 명태 필렛의 글로벌 SCM과 교역구조



1) FAO의 수산물 국제교역 통계는 2013년이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생산량, 환율 등을 2013년 기준으로 맞춤. 수입시장 기준, 2013년 수입평균단가, 1,095.04원=1\$)

■ 글로벌 명태 SCM²⁾의 핵심국은 중계 가공국인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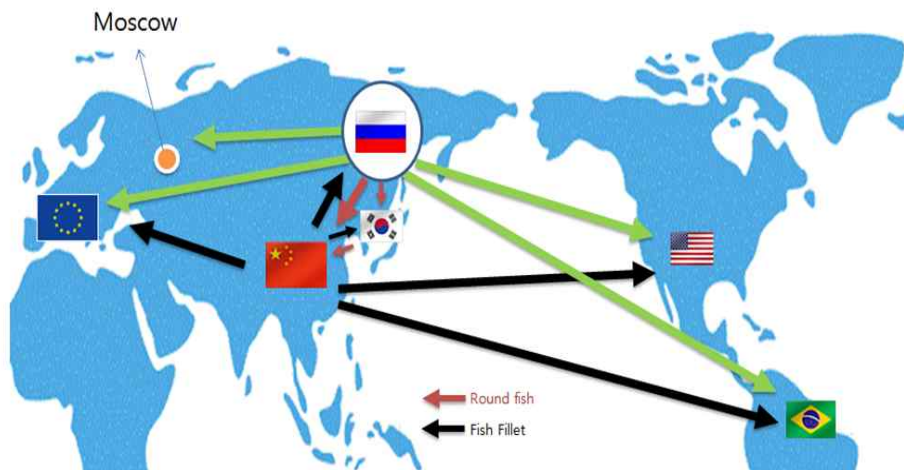
- 명태의 핵심 상품은 냉동 명태 필렛이며, 원어(원료)로부터 약 1.7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글로벌 명태 필렛의 SCM은 러시아에서 중국이 원료를 수입·가공 후에 유럽, 북미, 남미 등으로 수출하는 구조임

■ 명태 1위 자원국 러시아, 명태 원료 공급국에서 가공국으로 변신 시도

- 푸틴의 극동 러시아 경제개발 정책에 수산분야가 포함되면서 러시아는 FI³⁾를 이용하여 베링 해의 수산자원(특히, 명태)의 원료 수출국에서 가공국으로 전환하는 정책⁴⁾을 공표함
- 러시아의 계획이 성공할 경우, 중국 중심의 글로벌 명태 SCM은 새로운 지각 변동을 야기하면서 한국에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러시아 정책 성공 시, 새로운 글로벌 명태 SCM

단순 명태 원어 수출에서 가공, 유통, 수출을 포함하는 글로벌 명태 SCM의 새로운 허브 구축



2) Supply Chain Management(공급사슬관리, SCM)

3) 외국인투자(Foreign Investment, FI)

4) 선도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에 수산식품클러스터 유치 계획 발표(본문에 설명)

한·러 어업협력, 수산분야 투자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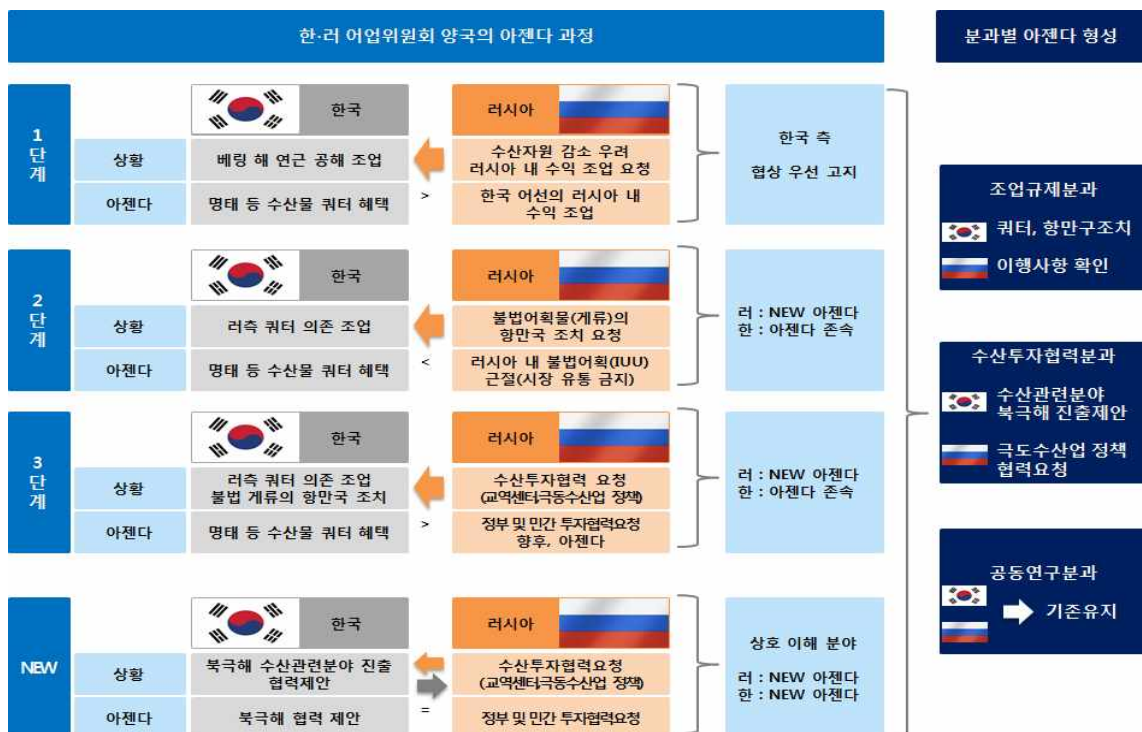
■ 한·러 어업협력은 한·러 협력의 시발점

- 한·러 양국은 베링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1991년에 어업협정(한·러 어업위원회)을 맺음. 이는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1990년) 이후 최초의 국가차원 협력사업이었으며 2017년 4월 중순에 제 26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앞두고 있음
- 한·러 어업협정은 주로 한국 어선의 러시아 EEZ 수역 내에서의 수산자원 어획과 관련한 쿼터 협상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이 외에 양국의 수산과학 협력, IUU어업 관련 내용 등이 동 어업협정에 포함됨
- 쿼터 대상 어종은 명태, 오징어, 꽁치, 대구 등이며 동 어종을 어획하는데 혼획되는 어종 일부도 포함됨

■ 러시아는 수산물 쿼터 배정을 수산분야의 육상 투자와 연계

- 이에 따라 한·러 어업협정의 주요 아젠다는 기존의 어획쿼터 배정, IUU어업 근절, 과학교류 등에서부터, 극동 러시아로의 수산분야 투자 문제로 급속히 바뀔

그림 2. 한·러 어업협정의 주요 AGENDA 변천과정



- 러시아의 대(對)한국 수산분야 투자 요청이 본격화된 것은 2011년 08월 부산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⁵⁾ 회기 중 개최된 「한·러 수산물교역센터와 관련한 제1차 한·러 실무회의」이였음
- 한국 측은 2012년 한·러 수산물교역센터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연구⁶⁾를 수행하였으며, 러시아 측 사정에 의해 무산됨
- 이후, 러시아는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공표하면서 극동 러시아 경제의 주요 기반인 수산업을 외국인 주요 투자 대상 분야로 육성함
- 2012년 푸틴의 ‘신동방정책’ 발표 이후 극동개발부(2012년)를 설립하고, 이어서 선도개발구역(TOR),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적극적인 극동 러시아 경제성장 정책을 공표함

표 1. 러시아 정부의 극동 러시아 개발 정책과 관련한 주요 내용

일시		주요 내용
2012년	1월	푸틴 신동방정책(21세기 러시아 발전 방향은 동쪽) 발표
	5월	러시아 ‘극동개발부’ 설립, 전권대표 임명
	9월	APED 정상회의 블라디보스토크 개최
2013년	3월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수립
2014년	4월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 개정
2015년	3월	‘선도개발구역(TOR)’ 관련 법안 발효, 9개 우선 추진 대상 지역 지정
	9월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토크 개최
	10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 발효

자료: 장홍석 외, 극동 러시아 해외수산투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개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원양산업협회, 2016. 9

한국의 극동 러시아 수산식품 비즈모델

■ 한국측은 ‘글로벌 명태 비즈모델’을 2016년에 러시아 측에 제안

- 러시아의 대한국 외국인 투자 요청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공동으로 한국의 대극동러시아 수산분야 외국인 투자 비즈 모델을 수립하였음
- 한국 측(KMI)이 제시한 기본 비즈모델은 러시아 베링 해의 막대한 명태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수산식품 콤플렉스를 극동지역에 조성하는 것이며, 동 콤플렉스 내의 각 종 사업에 한국의 수산업계가 진출 가능하도록 한 것임

5)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NPFC

6) KMI, "한·러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2012

- 극동러시아 수산식품 콤플렉스의 개념은 러시아 베링 해에서 연간 140~150만 톤 어획되는 명태자원을 활용하여 어업+가공+유통(물류)+수산물관련산업(부산물 처리, 경매, 선박수리업 등) 등 복합산업 콤플렉스를 조성하여 현재의 중국 중심 글로벌 명태 SCM에서 새로운 글로벌 SCM을 추가하는 것임
- 한국의 투자 가능 분야로는 가공(원어가공 관련, 필렛, 건조-황태 등), 부산물(어분, 어유, 명란, 창란 등), 수산물류(냉동냉장창고, 물류센터, 역내 하역 등), 시스템(경매 시스템, 오페수 처리 시스템, 관련 인프라 토목/건축 등), 노동력(인력 송출사업 등) 부문 등임

그림 4. 극동 러시아 수산식품(명태) 클러스터 비즈모델 개념도



자료: 전계서

한국측 비즈모델 근거로 콤플렉스 계획 수립

■ (극동러시아 수산식품 콤플렉스) 러시아는 나테진스키야에 '수산식품단지' 계획 수립

-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남부 약 30km 지역인 나테진스키야에 '수산식품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동 클러스터 내에 한국 수산물관련기업에게 투자를 요청함
- 동 클러스터는 3권역 9개 사업지역으로 구분되며, 한국 수산물 관련 기업들이 진출 가능한 지역으로는 수산가공업 혹은 부산물가공업을 위한 1~3 사업지역과, 어항 및 냉동냉장창고업 등의 8 사업지역 등임

그림 5. 러시아 정부의 극동러시아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계획



자료: 장흥석 외, 전거서

수산업의 극동러시아 투자 가능 분야

■ 한국은 냉동냉장물류, 부산물처리공장, 건어물가공, 경매시스템 분야 등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⁷⁾

- (냉동냉장물류센터) 극동 러시아의 수산물 냉동냉장창고 부족으로 한국 측 관련 기업이 극동 러시아의 냉동냉장물류센터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극동 러시아는 약 250만 톤의 수산물(이 중, 150만 톤이 명태)이 연중 생산되는 반면에 육상의 냉동냉장보관능력은 약 7만 톤에 불과함
- 이에 따라 현재 냉동냉장창고의 연간 회전율이 30회 고회전율에 이를 정도로 수요대비 냉동냉장 보관시설 부족이 극동 러시아 수산업의 아킬레스건임
- 또한 기존 냉동냉장창고시설들이 대부분 30년 이상되었거나 전근대적인 보관물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SCRAP 혹은 현대적인 보관물류 시스템 도입 등이 시급함
- (부산물 처리공장) 극동 러시아의 수산식품클러스터의 Core 사업은 수산가공업이며, 명태 등 대량

7) 실제로 2017년 1월 현재, 4~5개 정도의 한국측 수산관련 분야기업들이 이들 분야에 진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어획이 가능한 자원을 원료로 하여 가공할 경우에 연간 약 8만 톤의 수산가공품이 생산될 것으로 러시아 정부는 예측하고 있음

- 동 가공품을 위해서는 연간 30만 톤의 원료가 필요하며, 동 원료가 가공되면서 연간 22만 톤 가량의 부산물(가공 부산물, 명란, 창란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단, 동 산업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산가공업이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 진출 가능함
- (건어물 가공 분야) 다량의 명태를 대상으로 한국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명태 건어물(황태, 맥태 등) 가공분야가 극동 러시아 수산식품클러스터에도 진출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명태를 말릴 수 있는 상당 부지가 확보됨과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명태 원어 처리장(내장 제거, 포장 등)이 필요
- (경매 시스템 분야) 또한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의 수산식품클러스터 계획을 통하여 고가의 수산물(대게, 왕게, 명란, 연어알 등) 경매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수산물 경매 시스템 및 운영관리 분야도 진출이 가능함

투자 긍정요인: 러시아 지원책이 강력한 투자 유인책

■ (선도개발구역: TOR) 선도개발구역은⁸⁾ 10개로 농수산업, 물류, 항만, 제조 및 가공업을 구역별로 특화한 강력한 세제 지원 정책

- 수산분야 관련 TOR는 나테진스키야로 총면적 807ha에 2016년 2월 현재 5개 기업이 입주함⁹⁾
- TOR 입주 기업은 ‘러시아 연방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정부 주도의 산업인프라 구축 및 각종 세제혜택·행정지원 등 해당 구역 내 특별법적 제도가 적용됨
- (세제)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 및 기업 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 (인프라) 도로, 가스, 상하수도, 전력 등 산업인프라 우선 지원, 부동산 임대료 할인 적용
- (고용) 외국인 근로자 유차·활용 허가 불요 및 러시아 입국 초청 쿼터 미적용 등 혜택 부여
- (통관) 관세동맹에 따른 관세법령에 따라 관세자유지역 통관절차를 적용함

8) 선도개발구역: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9) 러시아 극동개발부 자료 참조

표 2. 극동 러시아 TOR의 조성 현황(2016년)

주체 (연방)	TOR명	소재지	면적	특화산업	입주기업 (기준일)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시 및 인근 지역 (라키토노, 아반카르드, 아에로포트)	587	물류센터, 농식품, 건축자재	6개 (2016.3.1.)
	콤소몰스크	콤소몰스크 인근 지역 (파루스-그린필드, 아무르스크, 아무르리타마쉬-브라운필드)	313	항공, 조선	4개 (2016.2.1.)
연해주	나데진스카야	나데진스키 지역	807	수인가공, 물류, 기계 등	5개 (2016.2.1.)
	마하일롭스키	마하일롭스키, 스파스키, 체르니옌코프스키 지역		농업 (양돈장, 사료공장, 유제품 등)	3개 (2016.2.1.)
	발쇼이카멘	발쇼이카멘 지역	324.1	조선 (조선수리 공장주변한대시도크 건설)	
아무르	프라이무르스카야	블라고베셴스크 및 아반 지역	857.3	산업 물류 (시멘트 클링커 가공 기업, 정유공장, 대규모 물류센터)	2개 (2016.2.1.)
	벨로고르스크	벨로고르스크시	702.3	농업 (콩 가공·제빵·사료 생산 공장)	1개 (2016.2.1.)
사하 공화국	칸달라스	아쿠치야	83	산업파크 (건축, 에너지, 산업폐기물 처리, 블록 고형화제, 플라스틱파이프 기타)	9개 (2016.2.8.)
캄차카	캄차카	엘리조보지역,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트카시	2,246	관광, 산업생산, 항만 (관광 휴양 클러스터, 산업생산단지, 북극항로 컨테이너 수송 항만)	1개 (2016.2.1.)
	베링그롭스키	추코트카자치구 아나디르시, 아나디르 석탄 매장지	600만	광업 (천연가스 채굴·가공)	

자료: 장홍석 외, 극동 러시아 해외수산투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개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원양산업협회, 2016. 9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연안지역 대형 항구 도시 육성 목표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입주 기업은 관세면제 및 각종 세제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 및 특혜를 적용 받음
- (세제) 법인세, 재산세,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 및 기업 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혜택 범위는 TOR과 유사한 수준
- (통관) 자유항 내 통관절차의 신속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경통과소 24시간 운영, 단일창구제도(single window), 전자 통관, 사전통보제도 등 도입
- (비자)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및 자유항 구역 내 항구, 중국 국경 자동차 세관(파그라니츠니, 폴타브카, 크라스키노)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인 무비자 가능(최대 8일간의 비자발급)

- (관리지원) 블라디보스토크 관리회사는 자유항 구역 내 투자프로젝트 전 과정 지원, 소송발생 시 입주기업 이익 보호

■ (기업경영 여건 개선) 러시아의 기업경영 여건은 지속 상승

- 러시아의 기업경영 여건 종합순위('Doing Business' 기준)는 2014년 62위에서 2016년 51위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음

■ (러시아 글로벌 경쟁력 상승) '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3년 4.2(62위)에서 2015년 4.4(45위)로 18계단 꺾음

- 사업규제, 내수경쟁 등 시장 효율성 측면의 경쟁력은 향상되었으나, 외환위기, 경기침체에 따른 물가상승, 공공재정악화 등 거시경제 측면의 환경은 악화됨

투자 부정요인: 서방 제재와 국가 신용등급 하락

■ (러시아 외국인 투자 감소)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는 2011년 대비 2014년에 감소했으나 극동 러시아 지역은 급증

- 외국인 투자 규모는 2014년 229억 달러로 2011년 대비 25% 감소했고, 2015년 3분기에는 1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함
- 단, 극동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 규모는 연평균 61%씩 증가함
 - 2015년 3분기 기준 약 4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2.5% 증가

■ (외채상환 부담 상승) 총외채규모 상승에 외환보유액 감소로 러시아의 외채상환 부담 증가

-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 기준 외채는 2015년 8,072억 달러로 2011년 대비 48.1% 증가함
- 루블화 가치 하락과 석유자원의 수출 감소로 달러기준 외환보유액은 2015년 3,095억 달러로 2011년 대비 38.0% 감소함

투자 평가: 글로벌 거시 환경이 변수

■ (오히려 투자 적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지속될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전문가들 사이에 팽배하나 트럼프의 대러시아 우호관계는 긍정적인 편

-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유럽지역의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면서 장기전으로 돌입하기에는 무리라는 전문가 의견 팽배하지만, 경제제재가 장기적이지 않다면,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하락이 오히려 외국인들에게는 투자의 적기라는 의견도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호적이고 엑스 모빌의 CEO 출신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또한 친러성향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 등 미국의 외교정책 상 러시아와 관계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¹⁰⁾

일본의 극동러시아 3조 원 투자 주의

■ 2016년 12월 푸틴-아베 회담에서 일본은 북방영토와 관련하여 극동 러시아에 3조원 규모의 컨소시엄 투자 제안

- 이 컨소시엄은 8개 항목 총 60개 정도의 사업으로 구성되며, 그 중 수산분야에는 수산가공업, 수산물 유통센터 등의 단지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한국의 대극동러시아 투자 사업들이 개별사업군 혹은 개별업체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투자를 계획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임

10) 엑스 모빌은 대러 제재에 따라 북극 및 사할린 등 러시아에서의 자원개발을 중단,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향후 대러 제재가 해제되고 유가가 회복되어 자원개발을 다시 추진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표 3. 일본-극동러시아 컨소시엄의 8개 항목 경제협력플랜

구분	주요 내용
의료	내시경 등 일본식 의료도입, 러시아 대형 제약회사에 출자
도시정비	최신기기 도입 우체국 정비, 일본식 우편기술 보급,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정비, 한랭지 대응 주택 정비
중소기업	세미나 및 상담회 등 개최, 금융지원 등 일본기업의 러시아 진출 지원
에너지	사할린 LNG생산 확대 등 석유·천연가스·석탄 자원개발 협력, 미쓰이물산 등이 국영 전력에 출자
산업진흥	생산설비 갱신·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극동개발	식물공장 도입지원 및 농지개발 추진 지원조직 설치, 하바롭스크 공항 정비, 보스토치니항 등 확충
인적교류	원자력 및 IT 등 기술협력
첨단기술	러시아 관광 진흥플랜 작성, 비자 요건 완화, 스포츠 등 교류 확대

자료: 외교부, 일-러 경제협력 동향(日 언론 보도), 2016.11.

한국, 수산 컨소시엄 투자로 수산분야 리스크 최소화

■ 극동 러시아 경제개발에서 수산업은 글로벌 명태산업에 새로운 판도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곧 우리 수산관련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

- 이에 따라 한국의 수산분야에서도 4~5건의 대극동 러시아 투자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 혹은 수립 중에 있으며, 이 외에 2~3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임

■ 이러한 기회를 보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 투자보다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수산분야 내에서 개별 사업 단위의 투자보다는 이들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가 정부간 혹은 기업간 투자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어 보다 나은 투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극동 러시아 수산분야 투자, 다양한 기대효과 예상

■ (우리 수산분야의 해외진출) 어업 영역에 국한된 해외진출에서 수산 전반의 해외진출을 모색

- 1960년대 우리 원양어업의 해외진출은 국부를 창출하는 제1의 산업이었으나 현재에는 성장보다는 지속가능성에 초점
- 수산분야의 23차 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우리 수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함
-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대해 수산분야의 해외투자를 강화하는 제도 변화를 검토 중에 있음

■ (부산 감천항의 역할 강화) 90년대 동북아 수산물류의 허브였던 부산 감천항의 새로운 역할 기대

- (극동 지역 수산식품 물동량 증가) 세계 수산물 산지인 극동 러시아의 원어 수산물에 더해 수산가공식품의 생산이 늘어날 경우, EU 등의 시장으로 ‘러시아발 EU행’ 수산물 및 수산식품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
- (감천항 보관물량 증가) 90년대 동북아 수산물류 허브였던 부산 감천항 냉동냉장물류단지로 “러시아발 유럽행” 수산식품 수출물량(BWT 물량) 및 내수물량 증가가 예상됨
 - 감천항의 냉동냉장단지의 장점: EU의 요구에 대한 행정처리(원산지 증명서 등) 노하우, 충분한 냉동냉장인프라, 보관물류 운영 노하우 등

■ (안정적인 명태 자원 확보) 러시아는 대한민국 명태 쿼터와 수산분야 투자를 연계하고 있어 우리 수산분야가 극동 러시아 진출 시, 간접적으로 안정적인 명태 쿼터 확보

- 한국의 명태 내수 추정량은 25만 톤 수준이며, 이 중 약 2~4만 톤을 국적 원양선사가 우리 국적으로 생산하고 있음¹¹⁾
- 러시아는 명태 쿼터를 수산투자와 연계하고 있어 향후 극동 러시아 수산투자가 진행될 경우에 국적선사에 의한 안정적인 명태 쿼터 확보가 가능함

11) 수산물은 기국주의이므로 어선의 국적에 따라 생산국이 정해짐. 즉, 우리 바다가 아닌 해역에서 어획을 하더라도 그 어선의 국적이 우리나라면,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됨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8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5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URL : <http://www.kmi.re.kr/web/trebook/list.do?rbsldx=273>